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아일랜드, 탄소세 폐지 결정

-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제정되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EU ETS 배출권이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에너지회사들은 배출권 비용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오히려 전력 회사들이 초과이익(windfall profits)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환수하기 위해 2010년 에너지회사들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제정함.
- 이에 반발하여 에너지회사인 Viridian Power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탄소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이러한 판결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2011년 아일랜드 재무부는 탄소세를 통해 7천5백만 유로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추정됨.

(Point Carbon, 2012. 5. 30; Irish Times, 2012. 5. 28)

러, 민영화 계획 수정안 승인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말에 발표된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정안을 6월 7일 승인·발표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2~2013년 동안 석유 및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됨. 주요 국영 석유기업들은 2016년까지 민영화됨.
- 또한, 2016년까지 Zarubazhneft(석유), RusHydro(수력발전/재생에너지), Inter RAO(전력) 등을 100% 민영화함.
- Transneft(석유수송), FGC UES(송전망)는 2016년부터

정부지분을 75%+1까지 축소함.

※ 2010년말부터 추진되었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현 총리)의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Transneft는 2017년까지 정부지분을 78.1%에서 50%+1로, FGC UES는 2013년까지 정부지분을 79.11%에서 50%+1로 축소하려고 했음.

- Rosnano(나노기술), Sovkomflot(조선), Sberbank(은행), VTB(은행), OZK(농업), Rosagrolizing(은행), RRC(철도) 등의 민영화 계획도 발표됨.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기업 Rosneft의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2016년까지 모든 국영 석유기업들이 완전히 민영화될 것이라고 승인 직전 발표함.

- 그러나 Igor Shuvalov 제1부총리는 현재 러시아 주식 시장이 Rosneft의 주식을 매각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Rosneft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함.

- 그는 매각 조건이 좋지 않으면 Rosneft 주식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Lenta; Oilru, 2012.6.7)

홋카이도전력, 8~9월 7%이상 절전가정에 상품권 지급

• 홋카이도전력은 8월, 올여름 절전 협력가정에 상품권인 쿠키카드(QUO card)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절전 캠페인을 발표함.

※ 쿠키카드 : 편의점, 패밀리레스토랑, 주유소, 약국, CD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정액카드, 일본 내에서 기프트카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8~9월 전력사용량을 전년동기 대비 7%이상 삭감하는 것이 지급 조건임.



- 15%이상 절전 시 2,000엔권, 7%이상 15% 미만 절전 시에는 1,000엔권을 증정함.

- 홋카이도 지역은 흑서기인 8월 전력이 1.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도마리 원전 정지와 도마토아츠마()화력발전소 4호기의 정기검사로 폭염 시 8월 전력이 1.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홋카이도전력은 도내 기업 및 가정에 2010년 대비 7% 이상의 절전을 요청 중임.

(, 2012.6.8)

간사이전력, 관내 절전목표 5~10%로 완화

• 일본 정부는 12일 오이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실현 후의 간사이전력 관내 절전목표를 현재 2010년 대비 15%에서 5~10%로 낮출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함.

- 시코쿠전력은 7%에서 5%로,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은 5%인 목표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규슈전력의 10%, 홋카이도전력의 7% 절전목표는 현행대로 유지함.
- 단, 발전소 사고 및 예상외의 폭염 등을 대비해 간사이전력, 규슈전력, 홋카이도전력, 시코쿠전력 4社 관내의 계획정전 준비는 계속함.

• 정부는 다음주 중 에너지 환경회의를 통해 절전목표를 정식으로 수정할 예정임.

- 오이 원전의 1기 재가동과 2기를 모두 가동하는 두 가지 상황에 따른 각각의 절전목표를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 2기를 풀가동하면 간사이전력 관내 발전능력은 약

440만kw(양수발전 포함)로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으로부터 전력용동이 불필요하게 됨.

(, 2012.6.13)

덴마크-중국, 에너지부문 공조 합의

• 덴마크와 중국은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등에서 양국의 상업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에 합의함.

-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6월 셋째 주에 덴마크를 방문했으며, 이는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은 후 62년 만에 처음 있는 방문임.

- 이번 공조 합의를 통해 친환경 기술 부문에서 양국 무역을 촉진하고 시장장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덴마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2014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부문에서 세계 제1의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풍력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이 2020년까지 4,230억 달러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이 풍력발전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향후 20년 동안 3억~3억 5천만 명의 중국 인구가 도시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중국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덴마크는 풍력발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력수요의 약 1/4을 풍력발전을 통해 얻고 있음.

- 또한, 덴마크는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Vestas를 비롯한 친환경 기술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Reuters, 2012.6.14)